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만족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

강희엽¹ · 권재윤² · 남상백²

¹연세대학교 · ²한양대학교

Construct Equivalence and Latent Means Analysis of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degree of Leisure Participation among Older Korean Adults

Kang, Hee-Yeob¹ · Kwon, Jae-Yoon² · Nam, Sang-Back²

¹Yonsei University · ²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struct equivalence and compare the latent means of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leisure participation levels of older Korean adult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 total of 293 surveys were collected from older Korean adul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by SPSS and AMOS program. For th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latent means analysis(LMA)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figural invariance, metric invariance, and scalar invariance of the scale can be meaningfully across the group. Second, statistical difference was existed 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Korean adults based on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period of participation. Thir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intensity of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further evidence that active and continuous leisure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creased the leisure satisfaction level.

Key words : Leisure Satisfaction, Construct Equivalence, Latent Means, Older Adults

주요어 : 여가만족, 구인동등성, 잠재평균,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Nam, Sang-Back

Hanyang University, 55 Hanyangdaehak-ro, Sangnok, Ansan, Gyeonggi-do, Korea

Tel: +82-31-400-5737 , E-mail: nsb300@gmail.com

Received: April, 25, 2017 Revised: May, 28, 2017 Accepted: June, 17, 20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가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인간에게 축복의 시간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 의료비 증대,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인간의 생애 발달 측면에서 노화는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 수명 80세를 넘어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화를 통해 노년기에 인생의 이모작을 형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와 긍정적인 담론이 필요할 것이며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대비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노년기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과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Kang, Lee, & Lee, 2017). 노년기에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행복한 노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Lee,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건강한 삶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여가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Moon, Lee, & Moon, 2013).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가 참여를 증대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Admas, Leibbrandt, & Moon, 2011; Park & Kim, 2013).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만족은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 생활

만족, 행복감 등을 향상시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Hyun & Jung, 2013; Kang & Jung, 2015; Kim, 2014). 여가만족은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Beard & Ragheb, 1980), 여가활동 만족은 노년기 성공적인 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Yun, 2014).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가활동 참여정도, 참여빈도, 강도, 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가활동 관련 연구에서 참여빈도, 참여기간, 및 참여강도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분석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인으로 적용되어져 왔으며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와 변인 간의 차이 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었다(Kim & Hwang, 2016). 그러나 기존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가만족 척도가 참여집단 모두에게 사용가능한 척도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Eum, 2016; Kim, Kim, & Cho, 2013; Park, Kim, & Oh, 2010). 즉,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라서 여가만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척도가 참여정도에 따른 집단별로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을 간과해왔다.

이에 여가만족 척도가 각 집단별로 모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척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Kim(2009)은 성별 집단에 따른 대학생들의 여가만족 구인동등성 검증을 통해 여가만족 척도가 성별 집단별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 Park(2009)은 스포츠센터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 그리고 Park & Chon(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동아리 형태에 따른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여 동아리 형태에 따라서 여가만족 척도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별, 대학

동아리 형태, 스포츠센터 유형에 따른 참여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여가만족에 대한 구인동등성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참여정도(빈도, 기간, 강도)에 따른 집단별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과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집단 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여가만족 척도가 참여집단에 따른 동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Eum, 2016; Kim et al., 2013). 이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여가만족 척도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과정은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척도의 적합성을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 여가활동과 여가만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여가만족 척도가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노력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구인동등성 검증과 함께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여가만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평균분석(LMA: Latent Means Analysis)은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평균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계기법보다 진보적인 통계적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Hong, Malik, & Lee, 2003),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여가만족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 통계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집단 간 차이를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별로 여가만족 척도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잠재평균분석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만족 척도는 여가참여 정도(빈도, 강도, 기간)에 따라 요인구조가 동일한가?

둘째,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여가만족 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여가참여 정도(빈도, 강도,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0대 이상 노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지역 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유의 표본 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일주일 1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320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조사 시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목적과 설문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은 응답자가 직접 읽고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자료는 바로 회수하였다. 이후 회수된 설문자료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27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293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32	45.1
	Female	161	54.9
Spouse	Yes	185	63.1
	no	108	36.9
Age	60-64	75	25.6
	65-69	55	18.8
	70-74	63	21.5
	75-79	51	17.4
	Over 80	49	16.7
Frequency of leisure activity	under 3 days	134	43.3
	3 days or over	159	56.7
Period of leisure activity	under 3 years	141	45.1
	3 years or over	152	54.9
Intensity of leisure activity	under 2 hour	127	45.7
	2 hour or over	166	54.3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 및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연구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참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배우자, 연령,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강도 등의 6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여가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이 개발하고 Lee(1992)가 번안하여 사용된 여가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사용하였다. 여가만족은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의 6개 하위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만족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다. 여가만족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심리적 만족 .875, 사회적 만족 .872, 교육적 만족 .842, 휴식

적 만족 .841, 생리적 만족 .916, 환경적 만족 .887 으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293부의 설문지는 SPSS 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으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AMO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여가만족의 요인별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잠재평균분석(LMA: Latent Mea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형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4.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참여정도에 따른 집단분류는 참여정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집단 간 적정 사례수를 배분하고 참여정도에 따른 집단별 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참여 집단을 설정하였다(Kim & Ha, 2014). 다음으로 참여정도 집단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가만족 척도가 집단별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인동등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인동등성 검증을 위해서는 형태동

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증이 순서대로 가정되어야 한다. 세 가지 동일성 검증은 동시에 가정될 수 없으며 형태동일성 가정이 만족되고 측정동일성이 검증이 이루어지며, 측정동일성 검증이 만족되어야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동일성 검증은 비교하는 집단 간에 동일한 관측변수가 동일한 잠재변수로 가정되는지 측정하여 집단별로 동일한 요인구조가 만족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은 집단별로 요인 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어야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절편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Steenkamp & Baumgartner, 1998). 마지막으로 절편동일성은 잠재변수가 집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관측변수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편동일성 검증을 통해 관측된 차이는 잠재 특성의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Hong, Hwang, & Lee, 2005).

III. 결과

1. 여가만족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간의 관계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거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각 요인별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적합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명확한 해석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였다. χ^2 을 이용한 모형 평가는 표

본 크기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이며, RMSEA는 .08 이하일 때 적합한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분석결과 TLI는 .942, CFI는 .950, RMSEA는 .060으로 각각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함께 측정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절차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도는 개념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여가만족 모든 하위요인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가 기준치인 .7과 .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자승치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이 (.670~.795)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304~.54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이와 함께 참여정도(강도, 빈도, 기간)에 따른 각 집단별 여가만족 척도 항목구성의 최적상태를 구성을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별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 척도의 6요인 모형은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Results of CFA for the Measurement Model

	Items	Factor loading	S.E.	CR	AVE
Psychological	Leisure activity is very interesting	.824	.224	.923	.750
	Leisure activity makes me to have pride	.779	.203		
	Leisure activity makes me to feel accomplishment	.817	.222		
	Leisure activity makes me to know myself	.773	.200		
Education	Leisure activity allows me to gain knowledge	.814	.278	.916	.732
	Leisure activity provides opportunity to try new things	.794	.239		
	Leisure activity helps to know about myself	.790	.201		
	Leisure activity makes me to understand other person	.781	.204		
Social	Through leisure activity, I interact socially with others	.690	.235	.903	.702
	Leisure activity makes me to maintain intimate relations with others	.835	.236		
	People who I met through leisure activity are kind	.757	.174		
	I promote friendship with people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y	.744	.331		
Relaxation	Leisure activity allows me to relax	.809	.363	.890	.670
	Leisure activity helps to relieve stress	.792	.249		
	Leisure activity helps to regain physical vitality	.759	.265		
	Leisure activity, by itself, offers me the reason to keep doing activity	.670	.257		
Physiological	I can test my physical ability through leisure activity	.848	.251	.939	.795
	Leisure activity can enhance physical strength	.857	.139		
	Leisure activity rehabilitate my health	.908	.170		
	Leisure activity can protect my health	.818	.197		
Aesthetic	Facilities and place are fresh and clean	.848	.322	.915	.731
	Facilities and place provide another layer of interesting	.793	.197		
	I exert a variety of skills and abilities	.845	.258		
	The place is nicely decorated	.786	.205		

$\chi^2=483.881$, $df=237$, $TLI=.942$, $CFI=.950$, $RMSEA=.060$

2. 참여정도에 대한 구인동등성 검증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만족되는지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먼저 참여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측변수가 동일한 요인에 가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상태에서 집

단의 구조가 동일한지를 확인하였다. 형태동일성 분석 결과, 참여정도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에 형태동일성은 성립되었으며 참여빈도, 강도, 기간에 따른 집단에 여가만족 6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참여빈도, 강도, 기간에 따른 집단 간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기저 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측정동일성의 χ^2 과 자유도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Table 3. Model fit of measurement model

Frequency	χ^2	df	TLI	CFI	RMSEA
under 3d	390.568	237	.914	.928	.072
3d over	459.630	237	.906	.921	.079
Intensity	χ^2	df	TLI	CFI	RMSEA
under 2h	396.480	237	.903	.919	.075
2h over	401.989	237	.934	.945	.067
Period	χ^2	df	TLI	CFI	RMSEA
under 3y	429.122	237	.918	.932	.078
3y over	390.289	237	.910	.925	.068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 값은 각각 17.496, 21.213, 39.54이고 자유도 차이 값은 18로 참여 기간에서 두 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이러한 결과 참여기간의 측정동일성 모형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 χ^2 차이검증은 χ^2 검증과 함께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Steenkamp & Baumgartner, 1998). 본 연구에서는 TLI, CFI, 그리고 RMSEA를 모형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고려하였다. 이는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경우 측정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강도와 참여기간의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저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만족 척도가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절편동일성 검증은 측정동일성 모형과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 정도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p < .001$), 절편동일성의 적합도 지수들이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고 일반적인 수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된 평균 차이가 잠재특성에 대한 집단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Table 4. Results of construct equivale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df	p
Frequency	configural invariance(baselined model)	904.389	474	.902	.916	.056			
	metric invariance	921.885	492	.905	.916	.055	17.496	18	.000
	metric & scalar invariance	967.265	516	.906	.912	.055	45.38	24	.000
	factor variance invariance	975.709	522	.907	.912	.055	8.444	6	.000
Intensity	configural invariance(baselined model)	899.928	474	.904	.917	.056			
	metric invariance	921.141	492	.906	.917	.055	21.213	18	.000
	metric & scalar invariance	973.838	516	.905	.911	.055	52.697	24	.000
	factor variance invariance	996.824	522	.902	.908	.056	22.986	6	.000
Period	configural invariance(baselined model)	880.174	474	.906	.919	.054			
	metric invariance	919.714	492	.904	.915	.055	39.54	18	.000
	metric & scalar invariance	963.183	516	.904	.911	.055	44.009	24	.000
	factor variance invariance	992.612	522	.901	.906	.056	29.429	6	.000

3. 잠재평균분석과 효과크기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형태, 측정, 절편 동일성이 모두 검증되었기에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 만족의 잠재평균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요인의 평균을 직접 추정하지 않고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다른 집단의 평균값을 추정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한다. 추정된 잠재평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두 집단의 잠재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ong, Hwang, & Lee, 2005). 본 연구에서는 3회 미만, 2시간 미만, 3년 미만 참여자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평균을 0으로 고정하여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값을 추정하였다. 이에 3회 이상, 2시간 이상, 3년 이상 참여 집단의 잠재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잠재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

재평균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참여빈도에 따른 주 3회 이상 참여집단에서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강도에 따른 결과에서는 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른 결과에서는 3년 이상 참여집단에서 여가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잠재평균 차이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Cohen의 효과크기(d)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상태에서 공통의 표준편차 적용해서 검증해야 한다 (Kwag & Cho, 2015). 이에 요인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정도에 따른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은 모두 절편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보다 크게

Table 5. Results of latent means analysis

Frequency	factor	under 3 days(n=134)		3 days or over(n=159)		effect size(d)
		mean		mean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0		.259**		.57
	Education	0		.221**		.55
	Social	0		.140		.45
	Relaxation	0		.172		.36
	Physiological	0		.072		.14
	Aesthetic	0		.311***		.62
Intensity	factor	under 2 hour(n=127)		2 hour or over(n=166)		effect size(d)
		mean		mean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0		.140		.31
	Education	0		.098		.23
	Social	0		.105		.32
	Relaxation	0		.093		.19
	Physiological	0		-.015		-.03
	Aesthetic	0		.070		.14
Period	factor	under 3 years(n=141)		3 years or over(n=152)		effect size(d)
		mean		mean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0		.332***		.79
	Education	0		.242**		.61
	Social	0		.271***		.84
	Relaxation	0		.289**		.57
	Physiological	0		.172*		.35
	Aesthetic	0		.176*		.37

나빠지지 않고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은 성립되었다. Cohen의 효과크기 기준은 값이 .2이면 작은 수준, .5이면 중간수준, .8이면 큰 수준의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이를 바탕으로 참여빈도에 따라 주 3회 이상 참여 집단의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만족 요인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기간에 따라 3년 이상 참여 집단의 사회적 만족요인은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으며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만족은 중간 수준, 생리적, 환경적 만족은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고 여가만족 하위요인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구인동등성 검증을 통해 여가만족 척도가 노인들의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에 동일한 측정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만족 척도는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평균분석을 위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순서대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척도의 구인동등성이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가만족 척도는 참여 정도에 따른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사용가능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기존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가만족 척도가 참여 집단 모두에게 사용가능한 척도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Eum, 2016; Kim et al., 2013). 여

가만족이 집단 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구인동등성 검증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척도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참여 정도에 따른 집단 모두에게 적합한 척도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Kim(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집단에 따른 구인동등성 검증을 통해 여가만족 척도가 성별 집단 모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rk & Chon(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동아리 형태에 따른 여가만족의 구인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여 동아리 형태에 따라서 여가만족 척도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여 정도 집단에 따른 여가만족 척도의 동일성을 검증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여가만족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Hwang, 2010; Song,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 척도가 여가활동 참여 정도(빈도, 강도, 기간)에 따른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여가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 빈도와 참여 기간에 따라서 여가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강도에 따라서는 여가만족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참여 빈도에서는 주 3회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3회 미만으로 참여하는 집단보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효과크기는 환경적, 심리적, 교육적 순으로 모두 중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높은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흥미와 미적보상을 크게 인지함과 동시에 여가활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교육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참여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환경적, 심리적, 교육적 여가만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Kim, 2013; Park et al., 2010). Song(2007)은 골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참여빈도가 증가할수록 교육적 여가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Lee, Park, & Lee(2000)은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만족의 관계분석에서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능동적 여가활동 참여가 여가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들의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참여빈도를 높이고 능동적인 활동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참여기간에서는 3년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3년 미만 참여 집단보다 여가만족 하위요인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특성에서 여가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기간이 여가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는 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Kim et al., 2013; Park & Yang, 2011) Hwang(2010)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기간이 높은 집단이 여가만족의 모든 하위요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가활동 참여기간을 지속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크기는 사회

적 만족이 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 기간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3년 이상 참여 집단이 사회적 여가만족을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적, 심리적, 휴식적 만족은 참여기간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심리적 만족은 참여기간에 따라서도 향상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여가활동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의 기회를 가지므로써 휴식적 만족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경우 여가활동 참여기간이 높은 집단에서 모든 여가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가져다주는 혜택과 보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노인들의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참여 정도에 따라 여가만족 척도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여가활동 참여 정도(빈도, 강도, 기간)에 따라 여가만족의 잠재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만족은 여가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동등성 검증을 위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었다. 이를 통해 여가만족 척도가 노인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노인들의

여가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환경적, 심리적, 교육적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이 높은 집단에서는 여가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강도에서는 여가만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들의 여가만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빈도와 기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개인의 여가활동 특성과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여가만족 척도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여가행동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변인들의 구인동등성과 잠재평균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Adams, K. B., & Leibbrandt, S., & Moon, H. (2011).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ocial and leisure activity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ging & Society, 31*(4), 638-712.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um, J. J. (2016). The effect of participation degree of badminton club members on fun and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6*, 557-56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ong, S. H., Hwang, M. H., & Lee, E. S. (2005).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scale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159-1177.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wang, J. K. (2010). *The effect of the old's leisure time on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nd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Hyun, M. S., & Jung, Y. S. (2013).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2*(4), 85-96
- Kang, H. Y., Lee, C. W., & Lee, M. S.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stress-related growth and happiness for older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1*(1), 1-14.
- Kang, S. T., & Jung, C. K. (2015). An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for physical activities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3(3), 145–156.
- Kim, J., & Ha, J. H. (2014). The difference of serious leisur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activi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7, 565–577.
- Kim, J. H. (2013). *A study on the feelings of depression, adaptation to society, satisfaction with leisure, and satisfaction with living, basing on old persons' participation traits in leis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J.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f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of the aged,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6(1), 761–770.
- Kim, M. L., & Hwang, S. H. (2016).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0(1), 69–81.
- Kim, Y. J. (2009).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latent mean analysis of korean leisure satisfac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5), 255–264.
- Kim, S. Y., & Kim, K. S., & Cho, K. H. (2013).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leisure satisfaction for adult female based up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for dance sport.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2(5), 253–265.
- Kwag, M. S., & Cho, O. Y. (2015).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dolescent female students toward school's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8(2), 61–88.
- Lee, H. W. (2012). The mediative effect of resilience in relationship between the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ell-being of the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8(2), 3–17.
- Lee, J. K. (1992). *Contribution of participation in sports & exercise programs to life satisfaction of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 Lee, J. H., Park, S. K., & Lee, M. O. (2000). A study of the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9(1), 208–221.
- Lee, G. Y., & Park, S. I. (2009). A comparative study of construct equivalence and latent means of leisure satisfaction between public and commercial sport center.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4), 135–144.
- Moon, B. Y., Lee, K. H., & Moon, H. Y. (2013).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25(5), 273–287.
- Park, J. K., & Yang, C. H. (2011).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in the coterie activity of volleyball sports for all on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9(2), 107–116.
- Park, K. H., & Kim, D. K. (2013). Analyzing elderly's leis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era of 100 aging society in Korea: series 1. analyzing elderly's leisure repertoire. *Journal of Tourism and*

- Leisure Research*, 25(6), 85–104.
- Park, S. I., & Chon, T. J. (2010). A comparative study of latent means of leisure satisfaction between college sport and non-sport club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2), 23–33.
- Park, M. K., Kim, K. R., & Oh, K.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commit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depending on participation degree of badminton club memb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3), 83–93.
- Song, E. J. (2007). *The old's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by taking parts in golf*.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ki University.
- Steenkamp, J. B. E.,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1), 78–90.
- Yun, J. W. (201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the elderly who participating senior welfare center's counting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